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2일 목요일 음 11월 29일(1물)

기상정보

흐리고 눈



제주에는 흐리고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 낮 최고기온은 4-6℃로 전망된다. 기온이 낮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경고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눈 1/4℃, 모레 흐리고 눈 3/6℃

월드뉴스

세계 3대 투자자 로저스 “제주비전 공감”

외교 콘퍼런스 축하 영상 보내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제주도의 아세안 정책 비전에 공감을 나타냈다.

짐 로저스 회장은 21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주 공동외교 콘퍼런스에 축하 영상을 보내 오영훈 제주지사의 아세안 정책 비전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지금 세계의 중심축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제가 싱가포르로 이주해서 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말했다. 제주도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하기 위한 제주-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은 제주의 지리적 이점과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국제 교류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동, 환태평양 지역까지 넓혀 새로운 글로벌 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토끼를 닮았다고 하는 토산봉에는 토끼가 없다. 문주란의 자생지로 유명한 토끼섬은 어떻게. 역시 토끼가 살지 않는다. 토끼섬은 한여름에 피는 문주란의 하얀 꽃들이 마치 흰 토끼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유래된 것이다.

토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는다

있고 도두봉이나 사랑봉 정상에 가면 동작이 느린 토끼들을 만날 수 있다. 기르던 집토끼를 몰래 풀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속담에 ‘우영에 든 꿩 놔뎡 밧뎡 쉰 쉰’은 멀리 오름이나 들만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까운 집 울타리 안에 들어 온 꿩을 놓치는 경우를 빗댄 것이다. 육심이 지나침을 나무라는 것이다.

토끼도 없는 토산봉과 토끼섬에 들어가 토끼를 찾으려고 한다. 토끼의 귀는 길고 크다. 왜 그럴까. 천적의 접근을 알아차리려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야 한다.

사실 여우와 같은 포식자는 살금살금 접근하기 때문에 토끼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평소 숨을 데를 봐두거나 땅굴을 파뉘야 하며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 멧토끼나 우는토끼는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몸을 뜬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주변을 수시로 경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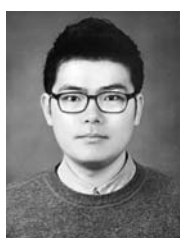
유비무환.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원하지 않은 재난은 닥치게 마련이다. 세상살이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한다. 토끼와 사람의 귀가 앞으로 향한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며 큰 소리치지 말라는 것이다.

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참 곱다. 바다에 사는 거북이와 땅에 사는 토끼가 경주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사실 잘난 체하다가 토끼가 진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이길 수 있도록 토끼가 낯살을 잔 것이다.

토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북이의 넉넉함과 부지런함, 거북이보다 늦게 도착한 토끼의 진심과 배려, 그리고 결승전에서 다 함께 손뼉 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다.

열린마당

악마는 그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



안종춘 조천파출소 경장

‘악마가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그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라는 프랑스 격언이 있다.

연말이 되니 코로나19의 갑갑함에서 한결 벗어나 여기저기서 저녁 약속을 잡는 소리가 들리며 모두가 들떠있는 분위기다. 술은 사람 사이에 윤택유와 같은 역할을 해왔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술이 뒤따른다.

술이 운전자의 판단능력 저하, 자기능력 과대평가, 난폭·조급한 행동,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고정애 제주시 주민복지과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역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이 절실한 시기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겸손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해 각종 미담이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고 그것이 주위에 알려지면 기부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쉬운 부분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이웃에게는 희망의 안부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일, 위기가구 발견 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나누는 일, 이 모두가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제주시에서도 각종 채널을 통해 겨울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제주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의 안부를 한번 더 살펴보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요목) with contact info and product list.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요목) listing various grape varieti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요목) for Red 1-5 year old grape varieties.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요목) for high quality domestic grape products.